

## 요약

미국의 공적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서 특정 비만 치료제에 한해 보험이 적용될 예정임. FDA에서 심장 질환 및 뇌졸중 예방 용도로 승인받은 비만 치료제는 심혈관 질환 이력이 있는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메디케어의 파트 D(처방약 보험)의 적용이 가능해짐. 비용 문제로 이용이 어렵다고 지적받던 비만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환자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동 보험 적용이 결국 파트 D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 2024년 3월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는 정부가 지원하는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서 특정 비만 치료제에 한해 보험이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함<sup>1)</sup>
  -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에서 비만 치료제의 보험 적용을 시도하는 것은 비만이 노년층 건강의 주요 문제로 인식되고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기 때문임
    - 최근 연구 결과, 일부 비만 치료제가 심장마비, 뇌졸중 등 비만 환자의 심혈관 관련 증상을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
    - 동 보험 적용 전 메디케어는 비만에 관한 검사, 행동 상담 및 수술만 보장되었음
  - FDA에서 심장 질환 및 뇌졸중 예방 용도로 추가 승인받은 비만 치료제는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의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심혈관 질환 이력이 있는 비만 환자의 경우 해당 비만 치료제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됨
    - 예를 들어 노보노디스크(Novo Nordisk)가 개발한 세마글루타이드계 약물인 비만 치료제 위고비(Wegovy)는 2024년 3월 FDA로부터 심장 질환 및 뇌졸중 예방에 대한 추가 적응증을 승인받았으며, 이에 따라 메디케어 가입자인 비만 환자가 심혈관 질환 이력이 있는 경우, 위고비 구입 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됨
    -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주요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비만 치료제로는 티르제파타이드계 약물인 켈바운드(Zepbound)가 있는데, 켈바운드의 제조업체인 일라이 릴리(Eli Lilly)는 FDA에 추가 승인 신청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메디케어 보험 적용 가능성이 있음
- 비만 치료제에 보험을 적용하고자 하는 정책 변화는 비만을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닌 만성 질환으로 다루고, 예방 차원의 건강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 메디케어는 1972년 제정된 규정(Medicare Exclusions Act)에 따라 비만을 질병이 아닌 생활 방식 문제로 간주하

1) WSJ(2024. 3. 21), "Medicare Opens Door for Covering Obesity Drugs"

였고 이후 파트 D가 만들어질 때 “식욕 부진, 체중 감량 또는 체중 증가에 사용되는 약물”에 대한 보장이 금지되었  
으며 현재까지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한 비만 치료제는 보장되지 않음

- 메디케어는 심혈관 질환 이력이 있는 환자뿐 아니라 향후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환자들에게도 비만 치료제를 보  
장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sup>2)</sup>

○ 비만 치료제의 높은 비용이 비만 치료제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용을 중단하는 주된 이유로 나타났기 때문에 비  
만 치료제에 보험이 적용된다면 해당 환자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sup>3)</sup>

- 비만 치료제는 매달 약 1,300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보험 적용 시 자기부담금이 325달러에서  
430달러 정도일 것으로 보이며,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의해 각 약물에 대한 자  
기부담금 상한선이 연간 2024년 기준 약 3,300달러, 2025년 기준 약 2,000달러로 정해져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점차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동 법에 의해 메디케어가 일부 고가의 약물에 대해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돼 비만 치료제의 비용 자체  
가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함

○ 한편, 동 보험 적용이 결국 파트 D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 비만 치료제의 보험 적용으로 인해 메디케어 파트 D의 연간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정책  
변화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파트 D 가입자 모두의 재정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됨
  - 비만 또는 과체중으로 진단받은 메디케어 가입자 1,370만 명 중 약 25%가 비만 치료제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10%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이로 인한 파트 D의 연간 지출이 30억 달  
러 이상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 미국은 비만율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비만 치료제 시장 또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세마글루  
타이드, 티르제파타이드 등 비만 치료제의 효능이 주목받기 시작하며 큰 폭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1999~2000년 미국의 성인 비만율은 약 30%였으나 2017~2018년 사이에는 약 42%로 크게 증가함<sup>4)</sup>
- 2023년 비만 치료제 시장은 약 60억 달러 규모였으며, 향후 몇 년간 큰 폭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1,050억 달러에서 최대 1,44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sup>5)</sup>
  - 비만 치료제의 시장 규모에 대한 예측치는 1년 전 예측치(1,000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50% 증가한 수치로, 최  
근 승인된 고효능 약물의 사용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예측치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2) OPEN ACCESS GOVERNMENT(2024. 9. 25), “Medicare considers coverage expansion for weight-loss medication”

3) KFF(2024. 4. 24), “An Estimated 1 in 4 Medicare Beneficiaries With Obesity or Overweight Could Be Eligible for Medicare Coverage of Wegovy, an Anti-Obesity Drug, to Reduce Heart Risk”

4)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한 데이터로, COVID-19 팬데믹으로 CDC의 데이터 수집이 중단되어 2017~2018  
년 데이터 값을 이용하였으므로 실제 현재 비만율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됨

5) Morgan Stanley(2024. 5. 7), “Scaling Up the Impact of Obesity Drugs”